

수출입은행, 『2009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발간

- 제조업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경영실적 개선

-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김동수)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3,481개사의 2009년 경영실적을 다각도로 분석한 『2009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발간했다고 11월 25일 밝혔다.
-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2009년 해외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률이 1.3%를 기록하여 전년의 -0.3% 대비 호전되었다.
 -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투자국인 중국에 진출한 현지법인은 2009년 경제성장세 유지 및 정부의 내수부양책 등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이 2.8%를 기록하는 등 전체 평균(1.3%) 대비 양호하였으나, 미국 진출 현지법인의 경우 내수경기 침체로 당기순이익은 -1.3%에 머물렀다.
 - 주요업종인 제조업과 도소매업 현지법인의 2009년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2.5% 및 0.1%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광업 현지법인은 유가 상승 및 개발투자 호조에 힘입어 당기순이익률 16.2%를 기록하는 등 전체 평균 대비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 동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근 5년 분석(연속 자료제출 770개사를 이용)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당기순이익률은 0.4%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2.0%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의 1.1%보다도 개선된 수익성을 시현하였다.

-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거둔 의미있는 성과이며,
- 중국 등 개도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세,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할 때 **2010년에도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2009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요약

문	산업투자조사실 책임조사역 김유신(☎02-3779-6812)		
의	홍보실	공보팀장	채상진(☎02-3779-6065)



<붙임>

2009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요약

1. 현지법인 경영실적

- 2009년 전체 자료제출 3,481개 현지법인은 2008년 전체 자료제출 3,295개 현지법인에 비해 경영성과 및 재무비율이 개선됨.
- 글로벌 경기침체 하에서도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투자국가인 중국 진출 현지법인의 수익성이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며, 미국 현지법인은 아직까지 적자가 유지되고 있으나 전년보다 실적이 개선되었음.
 - 업종별로는 최대 투자업종인 제조업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고, 도소매업도 흑자 전환되었음. 특히, 최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광업의 경우 전년도에 이어 높은 당기순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음.

<2009년 전년대비 경영성과 및 재무비율(3,481개사)^{주)}>

(%, 배)

	투자잔액 비중	영업 이익률	당기 순이익률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 배율
2009년도	100.0	2.3	1.3	176.2	114.3	3.5
제조업	44.8	3.4	2.5	160.1	110.6	5.9
도소매업	18.7	0.6	0.1	279.6	119.0	1.5
광업	13.0	23.8	16.2	87.1	184.8	13.2
중국	24.0	3.7	2.8	136.1	111.8	8.6
미국	23.6	0.0	-1.3	236.7	114.4	-0.04
2008년도	100.0	1.0	-0.3	195.5	109.3	1.4
제조업	48.4	1.3	0.1	153.7	103.1	1.9
도소매업	20.1	0.3	-0.1	306.6	111.3	0.8
광업	7.6	23.5	12.4	138.1	139.0	8.1
중국	27.2	1.9	1.4	125.8	102.9	3.4
미국	25.5	-0.6	-2.9	250.3	104.9	-0.5

주: 2009년 분석대상 3,481개사는 투자잔액 기준으로 전체 현지법인의 66.2%에 해당

2. 해외직접투자 성과

□ 국내투자자는 현지법인을 통해 투자자순이익 32.0억 달러, 로열티 28.7억 달러, 대부이자 0.6억 달러 등 총 61.3억 달러의 투자수익을 기록함.

- 2009년 투자수익률(투자잔액 대비 투자수익)은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라 8.7%를 기록하여 전년도의 2.5%보다 크게 개선되었음.

<현지법인 투자수익률(3,481개사)>

(백만 달러, %)

	투자수익				투자잔액(B)	투자수익률 (A/B)
	투자자순이익 ^{주)}	로열티	대부이자	합계(A)		
2009	3,197	2,868	61	6,126	70,241	8.7
2008	-782	2,146	51	1,415	55,519	2.5

주: 투자자 순이익 =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 한국투자자의 지분율

□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 앞 수출액은 1,240.7억 달러,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551.1억 달러로 689.6억 달러의 순수출액을 기록함.

-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2009년 98.2%를 기록하였으며, 업종별로는 국내기업의 판매법인이 대부분인 도소매업이 42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2008년 무역수지 개선효과 117.1%에 비해 낮으나, 순수출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음.

<현지법인 수출입 유발효과(3,481개사)>

(백만 달러, %)

	투자잔액(A)	수출(B)	수입(C)	순수출 (D=B-C)	무역수지 개선효과 (D/A)
2009	70,241	124,068	55,113	68,955	98.2
제조업	31,435	42,650	37,471	5,179	16.5
도소매업	13,151	69,930	14,253	55,677	423.4
광업	9,161	324	1,210	-886	-9.7
중국	16,840	18,867	25,117	-6,250	-37.1
미국	16,570	33,445	3,535	29,910	180.5
2008	55,520	122,244	57,213	65,031	117.1
제조업	26,883	44,926	35,389	9,537	35.5
도소매업	11,144	71,615	19,464	52,152	468.0
광업	4,202	14	946	-932	-22.2
중국	15,124	19,054	20,641	-1,588	-10.5
미국	14,172	29,415	3,160	26,254	185.3

3. 최근 5년간 해외직접투자 경영성과 비교

- 5년 연속 자료제출 770개 현지법인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2008년 수익성이 저하되었다가, 2009년에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도 양호한 수준으로 크게 개선

<최근 5개연도 경영성과 및 재무비율(770개사)^{주)}>

(%)

	2005	2006	2007	2008	2009
영업이익률	1.1	0.9	1.5	1.5	2.7
제조업	1.7	0.6	2.1	1.9	4.0
도소매업	0.3	0.8	0.8	0.5	0.8
광업	29.2	16.3	19.0	32.4	29.0
중국	1.7	0.4	3.5	2.2	5.0
미국	0.3	1.0	0.6	0.3	0.6
당기순이익률	0.5	0.3	1.1	0.4	2.0
제조업	0.9	-0.2	1.4	0.5	3.3
도소매업	0.1	0.8	0.8	0.2	0.4
광업	13.1	5.4	7.0	16.6	15.0
중국	1.5	-0.6	3.4	1.5	4.0
미국	-0.1	0.5	0.2	-2.2	-0.6
부채비율	222.7	267.2	243.4	220.2	204.1
중국	122.8	160.9	148.6	133.8	130.1
미국	369.9	428.4	340.7	377.6	337.4

주: 연도별 비교분석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동일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분석하였으며, 동 770개사는 투자잔액 기준으로 전체 현지법인의 21.1%에 해당

- 제조업 세부업종별로 분석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은 2008년 당기순손실에서 2009년에는 중국 등 해외 각국의 내수부양 정책에 힘입어 디스플레이 패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하였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은 2007년부터 수익성이 지속 개선되고 있음.

<최근 5개연도 제조업 세부업종별 당기순이익률(770개사)>

(%)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당기순이익률	0.9	-0.2	1.4	0.5	3.3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6	0.3	1.6	2.1	4.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6.2	-0.9	2.1	-2.4	2.4